

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

중앙위, 당헌 개정안 84% 찬성...당권-대권 분리 규정 손질 원내대표 선출 권리당원 20% 반영...후보자 검증 공관위로 일원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어기구 부의장은 17일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개정안은 지난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온 '당원권 강화' 규정도 여럿 담겼다.

우선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재적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으로 변경됐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안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당원의 역할을 확대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끼지만,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를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선 공천 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이날 당헌 개정은 개별 항목 투표가 아닌 크게 11개 항목의 일괄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대통령 '개각' 이번달 넘길 듯

속도보다 검증 주력

이르면 이달 중 단행될 것으로 점쳐졌던 개각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속도감 있는 개각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최대한 적합한 인사를 발탁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여론 관계자는 17일 개각과 관련, 현재 후보군을 추리는 초기 단계로 조만간 인사 발표가 날 정도의 단계는 아니며 검증 등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몇 주가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전날 새벽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개각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으로는 지난 4·10 총선 이후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자리를 지킨 장·차관들이 우선 거론된다.

장수 재임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장관 6명을 모두 교체할 경우 중폭 이상의 개각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라는 허들을 감수하고 장관직을 희망하는 인사들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우원식 "6월 임시국회 차질없이 진행"

국회서 회견 "집권여당 책임있는 자세 필요...원구성 합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차질없이)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민주당) 11개, 2당(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면서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덜어내는 이유가 되지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맨 왼쪽) 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국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검찰, 상식 어긋난 주장"

"北에 현금 몇십억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화영이 바보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쌍방을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증거도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 아니냐"라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

인가.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예산편성에 몇 달은 걸린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10월에 (현금지원) 약속을 받고서 11월에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는 건데, 북한도 바보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언론을 향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5·18 조사위 기록물, 기념재단 등에 이관"

민형배, 진상규명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광산출) 국회의원은 1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회 활동 종료 후 별도 절차 없이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에 기록물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광주 의 재산이며, 향후 귀중한 연구 자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이를 위해 이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하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도 지난 10월에 이어 다시 한번 광주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단체로 이

관할 수 있다. 이에 이관 절차가 복잡하고, 대상기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기록물에 대한 이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6월 26일 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만큼 자료 이관이라는 중요한 행정 행위를 마무리할 법 개정이 시급했다. 위원회가 수집·생산한 기록물은 군 관련 자료가 대다수이므로, 추후 자료 활용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 의원은 이러한 취약점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는 활동 종료 후 별도 절차 없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에 기록물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 통과가 현재 5·18기록관, 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등의 5·18 관련 기록물 통합작업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속한 법안 통과로 주권자 시민께 광주 국회의원의 '조직적 유능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